

■ 연구원 소식

○ 황지호 회원 신간 도서 안내 “산전수전 겪지 않고 시골집 고치기”

우리연구원 황지호 회원이 쓰고 한명수 전임 운영위원이 출판한 신간도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농 귀촌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열망을 반영하듯 2017년 귀농 귀촌인 및 가구원은 516,817명으로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2018년 한국갤럽이 조사한 귀촌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연환경이 좋아서(20.4%), 가족 및 친지와 살기위해서(16.4%),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13.8%),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13.6%) 순으로 보고되었다. 귀촌은 이처럼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이들이 자신만의 삶을 향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하는 이라면 누구나 꿈꾸어 봄직한 일이지만 무턱대고 귀농했다간 유턴하기 십상입니다.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위한 가장 어려운 선택은 살 집을 선택하고 집을 짓는 일일 것입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직접 집을 고치고 짓는 과정에서 얻은 생생한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이웃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요령을 비롯해 좋은 집터, 피해야 할 집터, 시골집을 선택하는 기준, 공사비 내역을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건축에 대해서 몰라도 괜찮습니다. 책은 저자가 집을 짓고 수리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건축 도중 발생하는 고민을 토로하거나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독자는 마치 이 과정에 참여한 인부의 한 사람이 된 것처럼 현장에 동참하게 됩니다. 때로는 고된 노동에 힘겹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펼쳐지면 화도 나고 공사 중이던 부역을 비운 사이에 불이 날 때는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합니다. 나아가 저자는 본문에 실용서의 조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매진했습니다. 공사 시작과 끝의 인과관계, 그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제시하려 노력한 흔적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의 전반부는 시골집을 찾거나 새로운 집터를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14가지의 조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적인 조건을 포함하여, 현실적인 진단을 위한 사항들도 제시합니다. 덧붙여 피해야 할 집터와 집을 실리적인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지어져 있던 시골집뿐만 아니라 새로 집을 짓기 위해 터를 마련할 때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책의 후반부는 공사 과정이 사진과 함께 공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날짜별로 전개됩니다. 저자 본인이 인부가 되어 공사에 참여하면서 유의할 점이나 의문 나는 점, 재료나 공정의 장단점 혹은 실수와 잘못된 선택도 같이 언급함으로써 독자가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흐름 출판사 도서 소개 글 中-----

○ 스리랑카 한 달 살이 이야기 연기 안내



유영봉 교수님과 함께하는 스리랑카 한 달 살이 이야기 나눔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연기되었습니다.

취소가 아니라 연기라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 되는대로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할 날을 다시 계획할 예정이라 그렇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늘 화평한 날만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봄을 만나지 못하고 떠난 시인(1943. 4. 25)

그의 이름 뒤에는 퇴폐적 낭만시인과 민족적 저항시인이라는 평가가 함께 이어지곤 한다. 1901년에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7세 때 부친이 별세하는 아픔을 일찍 겪게 된다. 그의 큰 아버지는 가정에 서당을 앗히고 가족 자녀들을 교육 받게 하였는데 그곳에서 14세가 되던 1914년까지 이 서당에서 공부를 했다.

15세인 1915년에 경성의 중앙학교(지금의 중앙고등학교)에 입학한 그는 3학년에 접어들면서 사춘기의 소년이 그러하듯 인생과 우주에 대한 철학적인 번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방랑의 길을 떠나기로 스스로 결심하고 금강산을 바라보고 그 품에 직접 안김으로써 무언가 자신의 갈등을 승화시킬 수 있는 한 정신의 거점에 당도하였다. 그때의 경험으로 나온 작품이 바로 후에 창작된 「금강송가」이다.

그는 1921년 5월 경 같은 대구 출신인 소설가 빙허 현진건의 소개로 월탄 박종화와 만나 홍사용, 나도향, 박영희와 함께 백조 동인에 가담하고 본격적인 문단 활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1922년 파리 유학을 목적으로 일본 동경의 어학원에서 2년간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학을 공부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이 나자 불령선인으로 몰려 일본인 폭도들로부터 암살 위협을 겪었으나 극적으로 수난을 피해 귀국했다.

얼마 전 유명짜한 보수 정치인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발표한 곳이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못이었다. 그의 이름 뒤에 민족적 저항시인이라는 평을 붙게 만든 시비가 서있다. 그는 이 시를 1926년 《개벽(開闢)》에 발표했다. 작자의 반일(反日) 민족의식을 표현한 작품으로 비탄과 허무, 저항과 애탄이 깔려 있다.

비록 나라는 빼앗겨 얼어붙어 있을 망정, 봄이 되면 민족혼이 담긴 국토, 즉 조국의 대자연은 우리를 일깨워준다는 것이다. 국토는 일시적으로 빼앗겼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민족혼을 불러일으킬 봄은 빼앗길 수 없다는 몸부림, 즉 피압박 민족의 비애와 일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식을 담고 있다.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네가 끝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워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썼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젓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깎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진 젓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짚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달는 내 혼자,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웁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땀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켰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끝내 봄을 만나지 못하고 1943년 4월 25일 오전 8시 45분 대구 자택에서 43세의 젊은 나이로 숨을 놓았다. 그 시인은 이상화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백장선사를 기리는 <수청산 백장암> 여섯 번째 이야기 “석등과 청동향로의 자태”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백장암 석등 | 보물 제40호. 상단부가 다소 큰 듯 보이지만 떠받드는 팔각의 몸체가 다부지다.

삼층석탑 뒤에는 석등 하나가 섰다. 석등은 깨달음의 빛을 세상에 두루 밝히는 성물聖物이다. 어둡고 흐린 중생들의 마음에 불성佛性を 밝혀 주는 법등法燈이다.

아사세왕이 부처님을 모셔다 공양을 올렸다. 얼마 후 부처님이 기원정사로 돌아가실 때, 왕은 왕궁에서 기원정사까지 수많은 등을 밝혔다. 그때 가난한 노파 하나가 이를 보고 크게 감격했다. 그래서 구걸한 돈으로 기름을 사러 갔더니, 기름집 주인이 노파를 나무랐다.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음식이라도 사 먹을 일이지, 도대체 기름은 사다가 어디에 쓴단 말ियो?” 노파가 더듬거리며 대답하였다.

“부처님 세상은 백 겁을 살아도 만나기 어렵다는데, 다행히 오늘 내가 만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니 초라한 등 하나라도 밝혀 보려 한다오.”

노파의 정성에 감동을 받은 기름집 주인은 기름을 더 부어 주었다. 노파는 길가에 등을 밝히며 간절히 서원하였다.

이 적은 기름으로는 초저녁도 못 버티겠지만, 만약 내가 후세에 도를 얻게 된다면 이 등불은 밤새 꺼지지 않으리란다.”

밤이 깊어가자, 왕이 밝힌 등불은 하나씩 꺼져 갔다. 그러나 노파가 밝힌 작은 등은 종내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밝은 빛을 뿜었다. 이윽고 날이 밝았다. 부처님은 목련존자에게 남은 등불을 끄라고 명하였다. 목련은 불을 꺼 나갔다.

그러나 노파의 등불은 세번씩이나 끄려 하였지만 끝내 꺼지지 않았다. 도리어 더욱 밝아지더니 하늘에까지 비추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말했다.

“목련아, 그만두어라! 그 등불은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노파의 넓고 큰 서원과 공덕으로 밝힌 것이니라. 그 등불의 공덕으로 노파는 오는 세상에 반드시 부처를 이룰 것이니라. 보아라! 한결같은 정성이 깃든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느니라.”

부처님은 이 노파가 30겁 후에 수미등광여래須彌燈光如來가 되리라고 수기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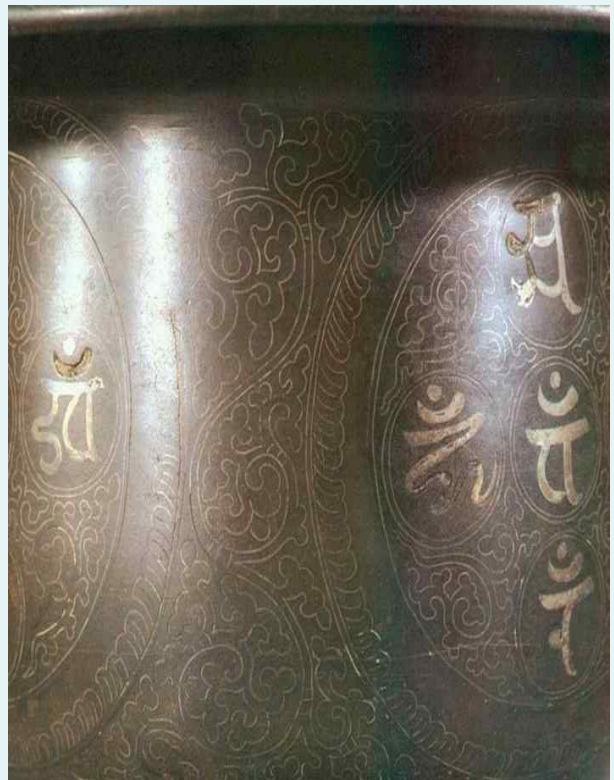
『아사세왕수결경阿斤世王授決經』에 나오는 ‘빈녀일등貧女一燈’이란 설화다. 이 이야기는 절간의 법당 앞에 석등이 서게 된 배경이 되었다.

백장암의 석등은 일견에 무척 단단하고 야무진 느낌을 준다. 검은 빛깔도 검은 빛깔이지만, 생김새 자체가 다부지다. 자세히 살펴보면, 방형의 지대석 위로 상당히 큰 복련覆蓮이 조각되었다. 그리고 보력의 중심에 4개의 꽃잎이 새겨진 특이한 형태다. 게다가 8각형의 지붕돌과 상대석 상단부의 난간 조각은 국내의 석등 가운데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석등은 앞쪽의 삼층석탑과 함께 화려한 장식을 자랑하는데,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다. 향이나 초를 피울 수 있도록 낸 화창구火窓口에는 창을 고정시키기 위한 구멍도 만들었으니, 실상사 경내에 있는 석등과 동일한 형식이다.

이 석등은 1980년 2월 도굴꾼에 의해 일부 파손되는 아픔과 복원과정을 겪었다. 상륜부 역시 원형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하단부에 난간을 조각해 놓은 모양이라든지, 장식 의장이 동일하다는 점으로 미루어 삼층석탑과 동일한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미루어진다. 보물 40호로 지정되었다.

백장암이 보유한 또 다른 자랑은 '만력 12년'이라고 새겨진 청동은입사향로靑銅銀入絲香爐인데, 보물 420호다. 향은 꽃이나 차와 함께 절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물품이다. 향은 불자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와 건물에서 풍기는 송진 냄새를 제거하는 용도에서 시작되었다. 게다가 향은 중생들의 번뇌와 망상을 잠시나마 잊도록 하기에 좋은 재료였으니, 마침내 향은 부처님께 올리는 중요한 공양물로 자신의 위치를 굳힐 수 있었다.



청동은입사향로 | 보물 제420호. 중생들의 번뇌와 망상을 잠재우던 향이 모락모락 피어났을 화로다. 천연스런 아름다움이 빛을 뿜는다.

향로 또한 향공양 때문에 매우 소중하게 다루는 기물이다. 따라서 향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절로 세련된 기교와 정성이 깃들곤 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향로들이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민족의 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향로는 대체로 은입로는 크기가 작다. 청동향로는 중국과 일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금사를 넣은 청동향로와 다양한 형태의 청자향로로 크게 양분된다. 청동향로는 대부분 뚜껑이 없는 형태며, 청자향로는 뚜껑을 지닌다. 청동향로가 대체로 큰 편인데 반해, 청자향속공예품이다. 청자의 값어치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좋으리라.

백장암이 소장한 청동은입사향로는 너른 직경의 주둥이 부분과 나팔형의 받침이 붙어 있는 형태로, 조선 시대의 걸작으로 인정받는다. 주둥이 안쪽에 “운봉백장사은사향완雲峰百丈寺銀絲香碗”이라는 문구와 말미에 “만력십이년갑신삼월주성萬曆十二年甲申三月鑄成”이라는 기록이 남았다. 만력 12년은 서기 1584년으로, 조선 선조 17년에 해당한다.

이 향로는 몸체와 받침을 따로 제작해 조립하는 형태로 제작되었다. 가느다란 은실로 정교하게 문양과 글귀를 만든 후, 다시 눌러 제작하는 은입사 수법을 구사하였다. 입 주위에는 가는 선으로 된 원이 9개가 있는데, 그 안쪽에 덩굴무늬를 가득 새겼다. 몸통 표면에는 이중의 가는 선으로 된 원을 새기고, 그 안에 범 자梵字를 둘러싼 5개의 작은 원을 다시 그려 넣었다. 원과 원 사이는 덩굴 무늬로 가득 찼고, 몸통 아래쪽은 두 줄로 된 18개의 연꽃잎으로 꾸며졌다. 받침대는 2단으로 되어 있으며, 위쪽의 길쭉한 연꽃잎 6장과 아래쪽의 덩굴 무늬로 전체를 장식하였다. 크기는 높이 30cm에 입 지름이 30cm다.

다음 주는 <수청산 백장암> 일곱 번째 이야기 “백장선원과 청화스님”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